

## 제주도 聚落研究의 動向과 課題

吳 洪 哲\*

### I. 序

제주도는 固有한 地域性格을 保有하고 있다. 自然的 基礎가 다른데다, 主人으로 定着한 住民의 意識과 歷史發展이 다르며, 環境에 適應하는 方法과 生活樣式까지도 다른 사실과 관련하여 總體의 意味를 안고 있는 人間活動 結果가 韓半島와 地球의 어느 部分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聚落이라는 生活舞臺도 단순한 土地空間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適應하며 研究와 努力으로 創出된 人間活動의 한 樣相이라고 볼 때 제주도 固有의 것으로 性格表出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聚落은 좁은 의미로 家屋의 集合體, 넓은 의미로 家屋, 耕地, 道路, 울타리(圍木), 부속시설 등을 포함하는<sup>1)</sup> 생활무대 전반을 가리키고 있다. 生活舞臺는 다시 村落의인 것과 都市의인 것으로 大別되고 있으나, 區分基準에 절대적인 것이 없고 相對的 觀點을 유지하고<sup>2)</sup> 있다. 그러나 發生根源이 하나이므로 研究方法이 都市와 다를바 없지만, 發達段階로 보아 村落이 먼저인 사실과 관련하여 正統性은 村落쪽에 있기 마련이다. 다만 들이 人口數, 生業基盤, 景觀構造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自然的 基礎, 社會經濟條件, 歷史背景, 住民意識과 價値觀에 따라 地域的으로 달라지고 있으니, 이것이 聚落이 갖는 固有個性이다.

\* 東國大 敎수, 聚落地理學

1)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敎學研究社, p. 14.

2) 吳洪哲, 1982, 人文地理學 原論, 敎學研究社, p. 229.

더우기 제주도는 聚落成立의 基盤이 同質性을 안고 있는데다, 韓半島의 從屬地이며 僻遠地의 성격을 안고 있기에, 近代化의 激浪속에서도 原型의 姿態와 變貌過程을 可視的으로 實證할 수 있는 資料의 寶庫的 의미를 안고 있으니, 聚落研究를 위한 深化 發展과 體系化를 위해 소중한 單位地域이 되고 있다.

## II. 취락연구의 動向

제주도의 聚落이 地理學者에 의하여 近代의 方法으로 擧論된 것은 西洋人에서 起源을 찾을 수 있다. 하멜의 제주도 漂流이후 'Quelpart'라는 명칭(漂流地가 加波島부근이므로 濟州本島와 각각한테서 연유한 地名으로 간주됨)으로 西歐社會에 일찍이 紹介되어 關心對象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地理學者인 Hall은 日本聚落의 한 部分으로 제주도취락을 취급하였거니와, 제주도라는 獨自地域에 관해서는 論題<sup>3)</sup>가 의미하듯이 취락에 그치지 않고 地域性格을 종합적으로 說明하는 地誌的 接近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日本人(善生永助)이 거론하고 있는데 地域이 제주도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聚落이라는 主題에 一貫하여 보다 深化된 수준으로 내용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발전된 調查研究의 結果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部分空間으로 取扱하였다 할지라도 同族聚落, 臨海聚落, 家屋構造, 聚落의 性格과 地名 등 현대 聚落地理學의 主要課題를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同族聚落<sup>4)</sup>에 관해서는 分布의 多密地로서 舊右面(嶺林)의 89개 自然部落을 비롯하여 右面(西歸) 49, 舊左面 35, 東中面(表善) 32, 濟州邑 32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成立要因으로서 韓半島와 隔絶되고 있는 지리적 위치, 독립된 生活圈과 관련된 豪族의 형성, 苛斂誅求의 상황에서 自給經濟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 政爭 및 黨爭과 관련된 兩班과 儒林의 流入, 隱

3) Hall R.B., 1926, Quelpart Island and its people, Geographical Review, Vol. 16.

4) 善生永助, 1934, 朝鮮의 聚落, 後篇, 朝鮮總督府, pp. 346-348.

通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同族聚落은 特定姓氏가 우세한 것에 착안하여 部落別로 100世代 이상 번영하는 門中을 列擧하고 있으니, 朝天面과 濟州邑의 金海金, 右面과 東中面の 慶州金, 舊左와 旌義面 濟州邑의 光山金, 舊右面의 全州李와 慶州李, 旌義面の 東萊鄭, 舊右面의 密陽朴, 新右(涯月)와 舊右面의 晉州姜, 右面의 淸州韓, 舊右面의 仁同張, 右面과 旌義 舊左面의 軍威吳, 舊右面의 南陽洪, 濟州와 舊左 舊右面의 濟州高, 右面과 西中面(南元)의 濟州梁, 右面의 陽川許, 東中과 旌義面の 谷山康, 右面의 信川康, 濟州邑과 右面의 延州玄, 舊左面의 濟州夫氏는 대표적인 것이 되고 있다.

한편 臨海聚落을 제주도 취락의 一般形態로 인정하여 地形圖와 함께 細花一帶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透水性이 큰 火山地形과 관련하여 飲料水로 이용되는 湧泉의 海岸偏在, 경작지의 海岸制約과 岩石海岸의 발달에 의한 半農半漁의 생업기반 등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여 海村이 보편화된 地理的背景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家屋構造에도 제주도는 韓半島와 相異한 固有形式을 포출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는데, 形式의 특성이 지리적으로 隣接한 한반도, 西日本, 琉球의 要素가 多分히 복합된데<sup>5)</sup>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內容은 全國的 視角에서 제주도를 部分取扱한 까닭에 概說的이며 斷片的 羅列에 지나지 않으므로 研究結果라기 보다 當代의 居住空間을 현재와 對比시켜 볼 수 있는 學問的으로 가치있는 資料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후 榭田<sup>一</sup><sup>6)</sup>에 의하여 제주도를 대상지역으로 삼고 研究課題도 취락 분야에 한정시켰으니 專門的 研究가 이때부터 本格化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方眼圖法(Grid Mapping)을 활용하여 취락의 分布狀態를 圖上表現 하므로써 해안에 偏在된 제주도 취락의 立地와 분포적 특질을 可視的으로 증명하였다. 동시에 거주공간의 中心軸이 바다를 향한 遠心的 移動, 漢拏山을 향한 求心的 移動으로 可變性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前者는 海岸을 貫通하는 一周道路의 건설과 日本進出을 위한 港灣建設로서, 後者는 火田農

5) 善生永助, 上揭書, 前篇, p. 55.

6) 榭田一二, 1939, 濟州島の聚落の地誌的研究, 地理, 第1卷1號, pp. 81-110.

業에 의한 非定住地의 출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吸引要因(pull factor)은 오히려 前者쪽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나 一周道路는 非鋪裝의 3等道路일망정 臨海聚落을 貫通하는 관계로 海陸交通의 要地로 발전할 立地上的 잇점을 안고 있는데다, 地方行政中心地의 기능까지 추가되므로써 新興聚落 출현의 새로운 轉期를 마련하였는데, 濟州, 西歸, 翰林, 幕瑟浦 등은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日本의 工業發展期와 관련하여 破格的인 運賃引下에 의한 工場勤勞者의 現場募集은 港灣繁榮의 결정적 계기를 낳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研究方法이 地誌의 接近方式을 탈피하지 못한 관계로 聚落個個의 것에 관하여 性格을 散發的으로 해명하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전체지역에 대한 法則추구로서 體系的 研究를 試圖한 점에는 미흡함을 안고 있다.

해방이후에는 日帝時代를 凌駕할 수 있는 研究陣容이 확보되지 않는데다, 빈약한 研究陣容마저 教授要目的 작성과 教科書 편찬에 우선, 주력<sup>7)</sup>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제주도는 4·3暴動事件의 여파가 오래도록 계속되는 동안 學問研究의 不毛地帶를 낳았다. 安定期에 접어들면서 연구의 不毛地帶에 새바람이 일기 시작하였지만, 地域開發을 전제로한 資料의 性格<sup>8)</sup> 때문에 취락은 부분적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民族主體力量에 의한 專門的 研究의 再登場은 筆者에 의해서 試圖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筆者가 學士論文에서 제주도의 취락을 주제로 삼고 飲料水와 聚落立地의 관계를 해명한 것을 계기로, 이후 碩士와 博士學位論文도 一貫된 主題와 同一地域을 대상삼아 段階的으로 進行하며 研究結果를 累積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第1段階는 立地에 초점을 맞추면서 先史時代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時系列에 따르는 立地의 變動事例를 자연, 사회, 경제조건과 관련시켜 體系化하고 地圖化하였다.<sup>9)</sup> 居住空間의 中心軸은 樹田一二가 言及한 바와 같이

7) 朴魯植, 1972, 韓國 地理學科의 現況과 方向: 全國大學 地理學科 세미나報告書, 慶熙大 地理學科, p. 12.

8) 建設部, 1967, 濟州島特定地域建設綜合計劃調查報告書, p. 63.

9) 吳洪哲, 1969, 濟州島의 聚落立地에 관한 研究, 地理學, 第4號, pp. 41-54.

海岸에서 內陸으로 移動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마찬가지로 移動時期의 具體性和 細分化가 다르다. 즉, 先史時代 이후에 지속된 소위 向山性 移動은 三邑時代에 絕頂期를 이루었거니와 이 때를 기하여 內陸을 三角狀으로 잇는 官道沿邊에 兩班儒林村이 형성되고 이들은 제주도의 中核聚落으로 변영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一周道路의 개통과 더불어 海陸交通의 要地로 부상된 海村에 行政機能까지 부여하므로써 기존의 기능탈취와 새로운 부여에 따르는 聚落의 盛衰과정(旌義→表善)을 설명하였다. 여기에다 漢拏山에 勢力據點을 둔 4·3暴動期에는 安全地帶가 되었던 海村을 향한 이동, 이른바 向海性 移動이 兩班村의 頽落과 海村의 변영이라는 相反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共匪討伐에 의한 安定期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向山性 移動이 再開되었으니, 이것이 村外果園의 조성, 觀光地 개발의 붐과 脈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제주도의 開發붐에 의한 居住空間(ökumene)의 垂直移動은 進行中에 있는 向上性移動의 延長線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第2段階로서 形態的 特質<sup>10)</sup>을 家屋等密度線圖에 根據를 두고 研究하였으니, 交通條件의 변화에 따라 500m 이내의 最隣接距離로 統合된 취락을 類型化(交叉型과 水平統合型)한 것은 주된 內容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地籍圖를 이용하여 垵地의 水平整合상태를 토대로 취락의 平面形態(특히 塊村)를 해명함과 동시에, 家屋構造를 格字窓門, 板門(大門으로 통용), 지붕材料, 間配置를 指標삼아 類型區分하고 類型分布地의 性格을 해명하였다. 이것에 의하면 原初型和 改良型으로 크게 兩分되는데, 前者는 南東斜面과 北面斜面에 集中分布되어 오늘의 民俗村設置地域과 合致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後者는 漢拏山의 正南北斜面에 해당되어 濟州, 西歸浦의 2大市域과 그 緣邊地域의 공통성을 안고 있다.

第3段階로서 同族聚落의 分化過程을 4門中(濟州高 慶州金, 信川康, 軍威吳)을 土臺로 入島動機, 分派時期와 過程, 定着 및 分派地의 地域特性을

10) 吳洪哲, 1974, 濟州島의 聚落形態에 관한 研究, 地域開發論文集(慶熙大), 第4輯, pp. 41-62.

연구<sup>11)</sup>하였다. 이 研究는 過去의 상황에 限定시키지 않고 85개의 國民學校 高學年生을 대상으로 現在의 상황과 對比(comparing)시키므로써 時系列的 連繫性에 바탕을 두고 部落別 同族率을 階層化하는 한편, 他姓과의 접촉(특히 女婿制)에 의한 複合化의 실태를 定量的으로 說明하였다.

最終段階에서 제주도의 杼락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를 完成(博士論文) 하였으니,<sup>12)</sup> 이것은 이미 단계적으로 發表되었던 研究成果를 加筆補完하면서 集大成한 것에 특색을 안고 있다. 內容構成은 成立과 發達, 形態, 立地, 機能 등 네가지 側面으로 編制하면서도 發達史에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固有한 自然과 社會, 歷史發展속에서 杼락이 成立되고 있음을 전개할 때, 國內外的 研究動向에 부합되면서 研究地域에 合當한 接近方法이며 內容編制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研究는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라 할 지라도 體系的 研究가 完成되므로 해서 解放 30年間의 杼락연구에서 가장 큰 研究成果라고 學界의 評價<sup>13)</sup>를 받고 있다.

이후 筆者는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대다수의 杼락과는 달리, 商業 農業의 도입과 開發붐과 더불어 年淺한 歷史속에 出現되었을 뿐 아니라, 景觀上으로 보편화된 塊村과 對照를 보이는 (散村) 果園聚落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최초의 研究가 禮山의 사과產地<sup>14)</sup>에서 이루어졌다. 제 2단계의 研究焦點을 제주도의 柑橘產地로 돌리므로써 果園聚落의 成立과 分布, 構造的 特色을 說明함<sup>15)</sup>과 동시에, 果種과 產地間에 對比를 통하여 과원杼락의 共通性和 地域的 差異性을 全國의 視野에서 說明<sup>16)</sup>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과원杼락에서 제주도 감귤과 원杼락이 갖는 의의를 제시하였다.

11) 吳洪哲, 1970, 濟州島 同族村의 分派過程, 大韓地理學會發表論文要旨, p. 5.

12) 吳洪哲, 1974, 濟州島의 聚落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創音印刷社, pp. 1-143.

13) 姜大玄, 1976, 地理學 30年의 回顧와 展望: 村落과 都市分野, 地理學, 第13號, p. 21.

14) 吳洪哲, 1977, 禮山地方의 果園聚落研究, 地理學, 第16號, pp. 35-54.

15) 吳洪哲, 1979, 濟州 柑橘產地의 聚落, 靑坡 盧道陽博士 古稀紀念文集, pp. 221-257.

16) 吳洪哲, 1980, 韓國 果園地域의 聚落研究, 韓國의 都市와 村落研究, 寶晉齋, pp. 24-71.

한편으로 筆者는 開發過程에서 派生되는 否定的 影響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對應을 위한 過疎村落(Remoter Rural)의 概念을 제주도 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人口增減의 실태를 指標로 할 때, 半島部와 같이 深化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都市周邊과 柑橘產地에 증가되고 漢拏山의 東西斜面에 감소되므로써 兩極化를 보이고 있음을 實證的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生産基盤에 기초를 둔 所得水準, 社會福祉와 便益施設이 집중된 都市로부터의 거리와 隔絶性에 연유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南北市(濟州+西歸浦)와 東西郡(北濟州의 東部와 南濟州 東部를 합쳐 東郡+北濟州의 西部와 南濟州의 西部를 합쳐 西郡)의 圈域構造<sup>17)</sup>를 구상하였다. 이 骨格위에 行政區域의 과감한 再編成과 더불어 郡都의 內陸移轉(城邑+楮旨)을 試圖한다면 內陸地方의 開發促進과 더불어 地域不均衡을 極少化시킬 수 있다고 展望하면서 獨自의 構想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筆者의 研究理念에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받고 碩士水準의 研究論文이 發表되었으니 洪承雲<sup>18)</sup>이 첫번째이다. 그는 제주도 觀光地域의 性格解明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觀光對象과 施設이 집중된 西歸浦地域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니, 先行研究된 취락의 경우와 取扱內容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으로 張齊翼<sup>19)</sup>은 聚落地理學의 本質課題에 부합되도록 西歸浦를 事例地域으로 삼고 中心聚落의 變貌過程을 해명하였다. 특히 그는 發生起源에서 시작하여 漸進의 擴張, 飛躍의 發展期로 구분하면서 都市化의 과정을 人口, 景觀, 機能의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니, 西歸浦市가 오늘에 있기까지 成長과 變遷의 斷面을 定立해 놓았다.

보다 큰 都市인 濟州市에 관해서는 宋成大<sup>20)</sup>가 研究하였는데, 發展過程을

- 
- 17) 吳洪哲, 1976, 開發過程에서 派生되는 地域問題의 實態와 그 對策: 濟州島의 事例를 중심으로, 韓國地理研究所 創立 2週年紀念심포지움要旨, pp. 22-43.  
 18) 洪承雲, 1977, 濟州島 觀光地域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pp. 1-65.  
 19) 張齊翼, 1979, 濟州島 中心聚落의 變貌: 西歸浦를 中心으로,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pp. 1-56.  
 20) 宋成大, 1980, 觀光地域의 都市化 研究: 濟州市의 事例를 중심으로, 慶熙大學校 大學院碩士論文, pp. 1-136.

時系列과 平面擴散의 觀點에서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機能의 측면에서 서비스業種의 變化추세, 立地動向을 해명한 것은 急成長하는 濟州市의 斷面定立을 하는데 寄與한 것이지만 西歸浦연구의 경우와 內容에서 大同小異하다. 다만 陸海空路의 交通조건과 關連하여 觀光客의 增減動向을 파악하여 通過觀光地의 性格을 해명한 것이 다르다.

都市의 平面擴張에 따라 造成되는 新市街地에 關해서도 問題提起<sup>21)</sup>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어서 公共機關과 버스티미날의 外廓移轉으로 劃一方式의 채택에 의한 獨自性이 결여되고 있다. 여기에다 舊市街地의 價値保全보다 경박한 新市街地 조성에 열의를 보이는 地方行政官의 그릇된 姿勢, 土地投機로 경제적 이익에 만족하는 명든 市民意識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취락을 구성하고 있는 主軸的 要素인 家屋에 대해서는 聚落地理學의 觀點은 아니라 할지라도 獨立된 主題로 취급한 것이 張保雄<sup>22)</sup>이다. 그는 제주도민의 生活據點이 되는 家屋(또는 民家)을 建築材料, 間과 棟配置에 焦點을 맞추고 特性을 해명한바 있지만 既存의 研究와 다름바 없다. 다만 構造的 特色을 文化源流와 關連시켜 해명한 것은 새로운 視覺이며 進一步된 成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주도의 가옥은 솔걸이 方法, 土座의 生活樣式, 便所와 豚舍의 未分化構造 등 南方文化的 要素가 상당히 殘存하고 있는데다, 大陸文化的 影響을 받은 부삼과 온돌이 複合되면서 南方的 要素를 退化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 Ⅲ. 未來의 研究課題

첫째, 發達史의 觀點에서 빌레돗, 北村, 天地淵 등 先史時代의 住居趾가 새롭게 발견된 사실<sup>23)</sup>과 關連하여 居住空間의 原初的 狀況에 대한 진상해명

21) 康炳基, 1985, 都市에 있어서 開發과 保全의 相補性, 濟州島研究, 第2輯, pp. 55-61.

22) 張保雄, 1974, 濟州島 民家의 研究, 地理學, 第10號, pp. 13-32.

23) 任孝宰, 1986, 濟州島 先史文化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濟州島研究, 第3輯, pp. 11-13.



과 동시에, 현존하는 취락과의 관계를 다각적 관점에서 定立하는데 있다. 또한 近代化의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취락에 반영된 變貌狀態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취락이 小宇宙처럼 고립된 土地위에 塊狀으로 密集된 것에 특색이 있다면, 오늘날은 部落사이의 餘白으로 남아있던 土地까지 居住地로 변모하면서 소위 conurbation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行政區域을 초월하여 時間變數에 맞춘 統合의 과정을 해명하고, 統合地域 전체에 대한 性格究明과 동시에 所有耕地的 細分化, 利用類型의 변화추세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聚落形態의 側面에서 塊村(Compact Settlement)이 우세한 상황이 散村(Dispersion)의 보편화된 상황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形態의 類型의 複合化와 多樣化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취락의 主軸的 構成要素가 되는 家屋構造를 真相解明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文化源流와 관련시켜 發生根源地, 波及루우트(Route), 再適應의 과정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家屋構造가 複合文化의 一樣相으로 볼 때, 北方文化의 樣相으로서 溫突構造, 南方文化의 樣相으로 平床構造(大廳과 蘭干은 平床의 變形構造로 봄)가 제주도라는 漸移地帶에 複合되고 있거니와, 琉球列島에 보편화된 別棟構造(부엌을 안채에서 분리시킴)가 山南地方에서 희귀하나마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주도의 行政單位와 面積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다 都市化가 현저한 邑級聚落에 대하여 體系的 研究가 필요하다. 邑級聚落은 전체인구에서 16만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濟州市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規模이지만, 바다로 둘러싸여 背後地의 土地가 限定되어 있는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한곳으로 偏重·過密된 都市보다 바람직한 小地域中心地가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邑級이상의 都市人口가 91%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先進國이 指向하는 國土全都市化(Ecumenopolis)가 제주도의 單位空間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서라도 邑級聚落 전체에 대한 個別研究는 계획에 앞서 마땅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네째, 地名과 관련시켜 居住空間의 性格을 해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地名

(Place Name)은 場所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可居地로 등장하기까지의 自然的 基礎(平坦地形으로서 江汀), 聚落成立 이후의 分化過程(發生根源인 上攀와 派生的인 下攀), 生業基盤 및 住民意識(乏水地の 念願으로서 造水)과 관련시켜 部落別로 상세한 個別研究가 필요하다. 그러나 部落別 個別研究는 제주도 전체의 취락성격을 해명하는 데 歸結되어야 하므로 部落自體의 調査研究가 最終結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聚落研究의 本質課題가 취락을 대상으로 客觀的 眞理를 추구하는데 있는 한편, 應用的 側面에서 住民生活의 安定的 向上과 繁榮을 가져오도록 學問的 寄與를 함에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현실에서 聚落構造의 再編成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耕地가 몇개의 筆地로 分散되거나 道路와 筆地境界가 自然發生的인 것이 많으며 果園地域은 例外라 할지라도 經營據點으로서의 農家가 상당한 거리로 耕地와 分離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空間摩擦과 작업의 非能率만이 남게 되므로 農民각자가 指向하는 이윤추구와 경영합리화에 逆行하는 구조가 되기<sup>24)</sup> 때문이다. 여기에다 村落社會는 生産과 生活이 同時共存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오늘의 改良型住宅과 같이 生活의 快適性과 外形의 美觀에만 편중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더우기 個別經營이 보편화되고 있는 果園地域에는 一齊히 一時防除를 통한 農藥公害로부터 탈피하여 農村 본래의 맑은 공기를 享有해야 될 필연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構造改善은 村落自體에 국한시키지 말고 서비스中心地인 都市와 連繫性을 유지시켜 都·農의 有機的 結合體系가 이루어졌을 때 村外轉出과 都市轉入이 없는 均衡發展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IV. 結 論

地理的 現象으로서의 聚落에 관하여 性格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

24) 吳洪哲, 1983, 韓國의 聚落에 관한 研究課題와 動向,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教學社, p. 29.

황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過去에 發生하여 현재까지에 도달되고 있는 變化의 證據를 포착하므로써 가능하다. 더우기 悠久한 歷史가 持續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에서는 固有한 自然, 歷史發展과 더불어 創出되었던 可視的 遺構를 통한 學問的 體系化는 原初的 姿態가 近代化의 激浪속으로 消滅되기 이전에 完了되는 것이 時急한 課題라고 본다. 더우기 局地地域으로서의 제주도는 學問素材상으로 相互連繫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隣接分野의 提携를 통한 學問的 協同이 必要하고, 이를 위한 當事者의 努力과 관련기관의 聲援이 要請되고 있다.